

# 낮뜨거운 '베끼 천국'... 낮부끄러운 광주

르포 - 호객행위 난무하는 상무지구 가보니

## KTX 개통·문화전당 개관 등 외지인 방문 줄이어 단속 아랑곳없고 곳곳 실랑이 일췌... 도시 이미지 먹칠

“아가씨들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어요. 손님이 왕. 맘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시고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지난 4일 밤 11시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뒤편 사거리.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한 무리의 남성들 앞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듣기만 해도 ‘낮뜨거운’ 말을 하며 손님을 끌고 있었다.

길을 건넌 시민들 일부가 듣기에 거북했던지 눈살을 찌푸리며 빨리 지나갔지만, 호객행위는 그치지 않았다. 대로변에서 “2차 확실합니다”, “아가씨 보장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울려 퍼졌다.

약속이나 한 듯 흰색 티셔츠나 남방 차

림을 한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상무지구 일대 유흥업소가 고밀한 호객꾼들로, 이날 밤 2시간 동안 목격된 호객꾼들만 줄잡아 20명에 달했다.

호객꾼들은 이곳 사거리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별정계 얼굴이 달아오른 남성들이 눈에 들어오면 움직임을 빨라졌다. 짙게 달리가 공손하게 자신들을 고용한 업소를 홍보하다가 애기가 들어지면 길을 막아서며 끈질기게 따라붙는 모습이었다. 일부 호객꾼들은 흥정이 들어지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내뱉기도 해 폭력사건으로 비화할까 걱정도 일었다. 하루가 지나 다시 찾아간 5일 밤에도 호객꾼

들의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는 반복됐다.

어둠이 깔린 광주 상무지구는 그야말로 ‘베끼들의 천국’이었다. 광주시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각종 공공기관이 밀집한 상무지구에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만 수백여 곳인 탓에 경찰, 구청 등 당국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손님 유혹하는 호객 행위는 근절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특히 KTX 개통 이후 아시아문화전당과 공공기관 방문 또는 각종 축제를 즐기러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무지구 일원에서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유흥업소 직원들의 도(度) 넘은 호객행위는 광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흥업소의 호객행위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불

법행위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버젓이 호객꾼들을 동원한 영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광주 서구청과 서부경찰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상무지구 일원에서 이뤄지는 호객 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에 매년 단속되는 업소는 5곳 안팎이다. 이런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호객꾼을 동원해 돈벌이에 나선다고 해도 모두가 적발되고 단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무지구 유흥업소의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단속이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구 관계자는 “광주시민뿐 아니라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한번뿐 상무지구를 들른다는 판단에 유흥업소 업주 수십 명을 불러 회의를 열고 지경경의도 해봤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지난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술집 호객꾼들(숙청 베끼)이 지나가는 취객에게 바짝 달라붙으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날 일대 도로에서만 20여명의 호객꾼들이 눈에 띄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짜통상품 장터 된 SNS

광주세관, 4000여점 불법 유통 대학생·주부 등 16명 적발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유명 상표의 ‘짜통’ 상품을 구매해 이를 다시 SNS로 되팔아 용돈 벌이를 한 학생과 주부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6일 SNS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대학생 A(27)씨와 A씨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매 부당 이득을 취한 가정주부 B(여·36)씨 등 모두 1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각종 짜통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B씨 등 15명에게 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범한 대학생이나 가정주부였던 B씨 등은 A씨로부터 구매한 짜통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해 1점당 1만~5만

원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B씨에게 받은 금액은 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A씨로부터 구입한 짜통은 시계, 신발, 바지, 가방 등 모두 74종 4167점으로, 진품일 경우 14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방법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수소문 끝에 중국 현지에서 짜통 브로커와 연결된 C(여·47)씨 등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세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세관 관계자는 “제주에 사무실을 둔 C씨가 짜통을 국내에 들여온 경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전남 CCTV 절반이 무용지물

46%가 130만화소 미만... 차량번호·얼굴 식별 불가능

11개 시·군은 통합관제센터 없어

전남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절반 가량이 차량번호나 얼굴 식별이 불가능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비례) 의원은 6일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도에 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지난 7월 말 기준 1만4000여대로, 이 중 46%가 방범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든 130만 화소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는 10대 중 3대 꼴에 그쳤다.

영암군의 경우 CCTV 580대 중 130만 화소 미만 CCTV가 518대(89.3%)에 달했다. 함평군(70%)과 보성군(68%), 강진군(62.5%), 담양군(62%), 구례군(61.6%) 등도 저화질의 CCTV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무안군은 전체 CCTV 가운데 56%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와 완도군도 200만 화소 이상이 각각 48.4%와 46.9%로 집계됐다.

CCTV 통합관제센터도 전남 20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 광양시, 장성군 등 9개 지역에만 설치됐을 뿐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가정폭력 신고 5년간 3배 이상 증가

전남지역의 가정폭력 신고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전남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846건으로 2011년 255건에 비해 591건 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292건, 2013년 618건, 2014년 524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재범 비율은 2011년 38%, 2012년 44.1%, 2013년 24.8%, 2014년 13.3%, 2015년 7.2%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전국 평균(2014년 5.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은 이혼, 가출 등 가정파탄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해 재범률을 줄이기 위한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골프장 전동카트에 부딪힌 70대 치료 중 숨져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부딪힌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6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47분께 영암군 한 골프장 1번홀 인근 카트 길에서 A(75)씨가 캐디 B(여·37)씨가 원격 조종하던 전동카트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밤 11시15분께 뇌진탕으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고등학교 동창 3명과 함께 골프장을 찾아 1번홀에서 경기를 마친 뒤 혼자서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원격으로 카트를 조종하던 캐디 B씨는 A씨를 발견하고도 곧장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며, 골프장 대표를 상대로 직원 관리와 교육 실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문화복합시설 · 펜션 최고 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시세/감정가 - 30억
- 매매 - 22억(법인체 인수 가)
-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월 이자 220만원) 1년후 20억 정도 대출 가

**펜션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구/벽스바) 서광병원 사거리 맞은편 코너
- 7층중 7층 120평, 전망최고/4면유리 모든 업종 오픈 가능
- 시세/감정가 - 7억
- 매매 - 5억 8천만원(법인체 인수 가) 대출 - 3억 6000만원(이자 130만원) 임대 - 보 5000만원에 월 300만원 임대중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최고 수익률!**

주인직매 H.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중 1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화순 전남대병원 인근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12월 완공예정)
- 매매-1억 6400만원(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특수비법 배우실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